

10월 5일 교훈

##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협받다

**핵심 구절:**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13**

**선별된 성경 구절:**  
**예레미야 1:6-10; 26:8-15**

"권력에 진실을 말하다"라는 표현은 20세기 중반 시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권위에 맞서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하는 이 개념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개념은 성경에서도 발견되며,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신 답변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거니와 내가 왕이라 하였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은즉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8:33,36,37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삶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는 그가 비록 소년이라 불리지만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예언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고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은 무엇든지 말할지니라. ...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왕 위에 세워 뽑고 부수며 멸하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게 하노라.”  
예레미야 1:7,9,10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신적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 위선과 거짓 의로움의 폭로, 대중적 신념과 행동의 모순 지적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자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도발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읍과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예언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귀족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을 만하니, 너희가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성읍을 향해 예언하였음이니라" 하니,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너희와 이 성읍에 무죄한 피를 부을 것이니라. ...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지지하였으므로, 그가 백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 예레미야 26:11,14,15,24

권력에 진실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우리 각자에게 용기를 주어, 인기가 없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